

지역 매아리

부안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부안군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저소득계층을 비롯해 청년, 귀농귀촌인, 지역활동가 등에게 주거환경공간 및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7동을 지원한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은 복권기금 등 4억원을 투입하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노후하고 안전위험이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대상자 100가구에 각각 최대 4백만원 한도 내에서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 1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내에서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자별 380만원 한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4월1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4월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참여형 프로그램 '어반비즈 도시학교' 운영

정읍시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2019 어반비즈(Urban Biz) 도시학교' (이하 도시학교)를 운영한다.

도시학교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거주하고 있는 3인 이상의 단체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단체는 도시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입교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공모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다. 시는 이후 내달부터 6월까지 도시학교 양성교육과 사업계획서 작성·발표, 평가 등을 실시한다. 특히 사업계획에서 계획서 작성까지 1:1코칭으로 진행한다.

도시학교를 수료한 팀에게는 한 팀당 사업비 3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관련해 공모 신청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정읍시청청로 234, 정읍시청 도시재생과)으로 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도시학교 신청서와 참여회원 명단, 사업 계획서, 공동체 활동 소개서 등으로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도시재생과(☎539-5809)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539-5819)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맞춤형 일 찾아 드려요”

고창군 로컬잡센터 개소... 3억6000만원 투자·전문컨설턴트 6명이 일자리 연결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지난 1일 오후 고창읍 월곡 꿈에그린 커뮤니티센터(고창읍 월곡뉴타운1길 11)에 ‘고창군 로컬JOB(일자리)센터’를 열었다. 개소식에는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미심 군산고용노동지청장 등이 함께했다.

‘로컬 JOB센터’는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농촌지역에 지역 거점형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올해 3억6000만원을 투자해 6명의 전문 컨설턴트 인력을 배치하고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이 수행기관을 맡아 일자리 소외지역과 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컨설턴트는 마을과 아파트단지, 농공단지 등을 수시로 방문해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일자리와 구직자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프로그램으로는 ▲취업박람회 ▲동행면접 ▲일자리 나눔 프로젝트(농번기 일손 제공)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관



고창군이 지난 1일 오후 고창읍 월곡 꿈에그린 커뮤니티센터(고창읍 월곡뉴타운1길 11)에 ‘고창군 로컬JOB센터’를 열었다.

내 기업 견학) 등이 운영된다.

지난달 28일에는 효율적인 일자리 매칭을 위해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 마을 현안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된 ‘고인돌 일자리 창출단’을 출범하는 등 마을-기관단체-기업간 협력망을 구축하고 센터와 협업을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로컬 JOB 센터가 비경제활동 인구의 취업 시장 진입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JOB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함께 잘사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강서구 호남향우연합회 회원 1200명의 정읍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가 최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아름다운 내고향 정읍의 봄 만끽

강서구 호남향우연합회, 재경정읍시민회 정읍 방문

강서구 호남향우연합회(회장 문종현, 이하 강서향우회) 회원 1200명의 정읍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가 최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강서향우회의 정읍 방문은 지난 1월 정읍 출신인 문종현 씨가 13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추진됐다.

강서향우회의 대규모 정읍 방문에 따라 재경정읍시민회(회장 정

태하) 회원 100여명도 함께 방문해 행사를 축하했다. 정읍시예술회동분부(이사장 이한욱)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11명의 시청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또 유성엽 국회의원과 최낙삼 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각급 사회단체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진성준 전 서울시 정

무부시장과 김병진 강서구의회의장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이 함께 방문해 고향방문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날 환영행사를 마친 출향인들은 벚꽃축제 행사장을 찾아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즐기고 내장산을 방문해 아름다운 정읍의 봄 정취를 만끽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생명 존중 분위기 조성 ‘총력’

정읍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정읍시가 농약안전보관함 415개를 신태인을 6개 마을과 고부면 9개 마을의 각 가구에 설치한다.

이는 올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관한 농약안전보관함 공모사업에 선정된 결과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은 농촌지역자살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음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는 4월 중에 각 가구에 8천300만원 상당의 보관함을 배부·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7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등 농촌지역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마을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보관함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11월에는 평가회도 가질 계획이다. 관련해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현판

전달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한국자살예방협회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각 마을 이장에게는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이 전달됐다. 이어 시는 마을 대표 15명을 생명지킴이로 위촉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에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 태인면 3개 마을 95가구에 보관함을 보급했다.

2018년에는 시 예산 1천800만원을 투입해 감곡면 3개 마을 95가구에 보급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유진섭 시장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이 마을 주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마을 주민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 대한노인회 등 기관 방문

정읍시의회 의장(최낙삼)은 최근 기관·시설 등 4개소를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호춘 대한노인회 정읍지회장과 김명수 정읍시립요양원장, 마을기업 해이팜의 이근희 대표와 자연가의 김지운 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한노인회정읍지회장과 간담회에서 최 의장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읍시예술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정읍시립요양원장과의 만남에서는 “신체 난방배관의 노후화로 누수가 잦은 배관의 시설보수 건의에 대해

어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해이팜 대표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간편한 식사(간식)를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2018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고 매출도 증가세이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료 및 홍보를 해주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자연가 대표는 “현미과자, 떡갈비, 선식을 만드는 마을공동체 기업으로 앞으로 관공체협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읍농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으며, 이에 최 의장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영농철 군민 민원해결 최선”

유기상 고창군수가 “본격 영농철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빠르고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유기상 군수가 심원면사무소에 이풍군정을 차려 놓고 직접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심원면은 고창지역에서도 바다·갯벌·염전·논·밭이 함께 있어 다양한 향안들은 벚꽃축제 행사장을 찾아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즐기고 내장산을 방문해 아름다운 정읍의 봄 정취를 만끽했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에서도 가장 열정적이고 바쁜 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에 와서 보니 활기가 넘친다”며 “조금이라도 일손을 덜어드리고,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상 군수는 민원지역인 고전마을과 두어마을, 사등마을 등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통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이동군청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한 농기계수리와 어르신 건강검진, 이·미용봉사가 함께 진행됐다. 또 지역 수산업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향토 기업체인 수경수산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동군청에 참여한 한 민원인은 “멀게만 느껴진 군수님이 면사무소에 차려져 일대일 대화를 할 수 있어 새다른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 TEL: 063-584-9900 www.gangsanwine.com